

# 전남 동부권 지자체 재난지원금 푼다

### 여수시 24일부터 20만원 광양시 30만원 이달 지급 고흥군 10만원 현금·상품권

전남 동부권 지역 지자체들이 새해들어 잇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파골운 시선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

년 12월 27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28만 2000명이 대상으로 총 569억원이 소요된다.

지금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즉시 선불카드 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시민 1인당 긴급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두번째 지원금이다.

광양시도 오는 25일부터 1인당 3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병행해 발행한다.

시는 지난해 4월 전남 최초로 전 시민 대상 긴급 재난생활비를 20만원씩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25만원씩 지급해 전남 지역 최고액 지급을 기록했다.

고흥군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전 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고흥 사랑 상품권으로 군민 한 명당 10만원씩 지원한다.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취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65세 이상 주민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초노령연금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달에는 순천시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곡성군은 조만간 조례제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서는 19개 지자체가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영암군은 3차례, 광양시와 영광군은 2차례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양시, 친환경 미생물제제 8종 280t 농가 공급



광양시가 오는 17일부터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 생육과 수량 증대에 효과가 있는 친환경 미생물제제(사진)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광양시는 지난해 8월 중순까지 고추균 등 6종의 미생물제제 98t을 659농가에 공급했고, 이후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공사로 운영을 중단했다.

올해 1월초 1층 농업용미생물실 보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7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올 하반기까지 총 280t을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미생물제제의 무분별한 사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2L, 5L 포장단위로 공급하고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에 공급할 미생물제제는 광합성균 고추균 유산균 백강균 비터균 비브이균 트리코더마 클로렐라 등 총 8종으로 기존 6종에 곰팡이제제 2종(백강균, 트리코더마)을 추가해 공급한다.

미생물제제의 오남용을 막고 적절한 사용을 지도하기 위해 연중 실시하는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해야 미생물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다.

최연송 광양시 기술보급과장은 "전국 최초의 곰팡이제제 개발과 유기농업자재 공시 등록을 추진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만잡월드를 찾은 청소년들이 프로파일러 체험을 하고 있다.

## 순천만잡월드, 성공적 출발 2개월만에 4만6196명 방문

### 올 방문객 21만명 목표

순천시가 올해 방문객 21만명을 목표로 순천만잡월드 활성화에 나선다.

순천시는 순천만잡월드가 지난해 10월 정식 개장한 이후 2개월 여만에 4만6196명(일평균 690명)이 방문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호남권 최초의 직업체험 교육기관인 순천만잡월드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3만4000㎡ 부지에 건축면적 80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은 어린이체험관과 푸드코트,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췄고 2층은 청소년체험관이 들어섰다.

시는 올해 운영시스템 보강을 통해 체험기록 경신과 미션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적립·사용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체험관별 소요시간 및 대기시간을 조정해 체험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월·연간 이용권 등 입장료 체계 다양화와 생태문화도시 특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순천의 미래먹거리로 손꼽히는 4차 산업 관련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열개발 체험 등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들의 진로·직업 흥미유발을 위한 연령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협동심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단체 미션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순천만잡월드와 5G 체험관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수익 다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미래산업과 관계자는 "순천만잡월드에서 모든 학생의 꿈을 키우는 학생 성장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경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광양항만공사, 에너지 자립 항만 구축 박차

### 7.4kW 풍력 발전 설치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30년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사육 인근에 7.4kW 소형 풍력 발전(사진)을 설치하고 발전을 개시했다.

이번에 설치된 소형 풍력발전은 대형 발전기에 비해 최소가동 바람 세기 조건(4m/s → 1.5m/s)과 소음을 개선한 것이다.

일일 발전 시간이 태양광 대비 2~4배 이상 높아 연간 27MWh의 전력 생산 및 약 11톤의 이산화탄소(CO2) 저감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현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개발사업 본부장)은 "연료전지·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다각화해 당초 목표대로 203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을 구축 할 계획"이라며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며 탄소중립 항만 구현에 박차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보성군,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 고의성·누적 여부 검토 조치

보성군이 오는 19일부터 2월2일까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이용해 폐수·대기 오염 물질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하며, 1단계는 사전제도 기간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2단계는 특별단속 기간(19일-28일)으로 취약 지역 순찰강화와 특별단속 실시, 3단계는 설 연휴기간(1월29일-2월2일)으로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비상근무를 통해 주요 하천과 사업장 주변을 순찰한다.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위의 고의성과 누적 여부 등을 검토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주민과 사업장에서는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군민들께서는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고흥군 친환경 부표 보급 미세 플라스틱 줄인다

고흥군이 해양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미세 플라스틱 발생이 거의 없는 친환경 부표 보급에 나섰다.

고흥군에 따르면 해양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2022년 친환경 부표 사업을 신청·접수 중이다.

고흥군은 친환경 부표 사업을 위해 지난해 51억 4700만 원보다 사업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110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단계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2024년까지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을 거친 제품이며, 오는 21일까지 고흥군청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 수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